

나주 영산강 자락에 '타오르는 강 문학관'

문순태 소설 '타오르는 강' 모티브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10월4일 개관 지신밟기·강좌·낭독·공연 등 개관행사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 (전 9권)은 구한말 나주 공상면 토지 수탈 사건을 비롯해 노비제세제도 폐지, 동학운동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다룬 대하소설이다. 역사적 사실과 활발한 상상력이 빛을 발한 서사는 재미와 감동을 준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주요 사건도 서사화 돼 있어 역사적 가치도 크다.

근현대 민중들의 역사를 웅숭깊게 담아냈던 '타오르는 강'을 모티브로 한 문학관이 문을 연다. 오는 10월 4일 오후 3시.



문순태 소설가



오는 10월 4일 나주 영산강에 개관하는 '타오르는 강 문학관'.

영산강과 영산강은 지리적 측면 뿐 아니라 방언, 생태, 공간 등 근대 콘텐츠가 남아 있어 '인문학의 보고'로 손색이 없다.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한다면 영산강 시대를 열어나가는 중요한 기록체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4일 '타오르는 강 문학관' 개관과 맞물려 풍물놀이, 강좌, 낭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먼저 오후 3시 개관식에는 운병대 나주시장, 이재남 시의회의장이 인사말, 신정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펼쳐지는 프로그램은 나주 국악단의 지신밟기, 고유의 민속놀이인 지신밟기는 지신을 달래고 복을 비는 고유의 민속놀이로 문학관의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국악단은 노래 '영산강 처녀'를 선사한다.

다음으로 소설가인 이민리 전 전남대 국문과 교수가 '영산강과 '타오르는 강''을 모티브로 짧은 강연

을 한다. 이 작가는 '타오르는 강'의 문학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영산강과의 연계된 역사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나주합창단은 '희망의 나라로'를 선사해 앞으로 펼쳐질 영산강 시대의 가능성과 미래를 선율에 담아낸다.

작품을 모티브로 한 낭독도 진행된다. '타오르는 강' 독서회 회원들이 작품을 발췌해 입체낭독을 하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문순태 작가의 답사를 끝으로 개관식 행사는 막을 내린다.

한편 운병대 나주시장은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은 지역 방언과 풍속 등이 담긴 인문학 보고"라며 "문학관 개관을 계기로 관광, 문화자원 등과 연계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에게 주어진 시간 신에게 편지를 쓰다



광주시립극단 '오스카와 장미할머니' 10월 3일 광주예술의전당

10살 밖에 안된 오스카는 암 환자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간호사 선생님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장미할머니를 만나고 나타난 '장미할머니'는 오스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머니는 오스카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적어, 신에게 편지를 쓰라"고 권유한다. 병을 앓는 10살 소년과 자원봉사자 할머니의 우정 이야기는 투병의 아픔을 넘어 깊은 여운을 남긴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원광연)이 기획공연 출장 연극 시리즈 '오스카와 장미할머니'를 선보인다.

오는 10월 3일 광주예술의전당 '그라제' 행사 일환인 소극장(오후 4시) 무대를 시작으로 5일(오후 3시)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7일(오후 7시) 광주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 8일(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

프랑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릭 엠마뉴엘 슈미트의 원작 소설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번 공연은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서 깨달은 지혜와 삶에 대한 성찰을 담담하게 그린다. 원광연 예술감독의 취임 첫 기획 작품이며 연출에 김지훈, 오스카 역에 양선아 배우, 장미할머니 역에 윤미란 배우 등이 출연한다.

원광연 예술감독은 "매년 소규모 '출장 연극' 시리즈를 기획해 시민 가까이 찾아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작품이나 '명작 연극선' 등도 계획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석 무료(7세 이상 관람 가), 3일, 8일 행사는 전석 매표이며 당일 티켓 발생분을 고려해 공연시간 15분 전부터 현장 배부.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아시아문학상'에 팔레스타인 소설가 아다니아 쉬블리

제5회 아시아문학상에 팔레스타인 소설가 아다니아 쉬블리가 선정됐다.

아시아문학상선정위원회(위원장 유희석)는 지난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장장 이강현, ACC)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행사 일환으로 올해의 아시아문학상에 팔레스타인 작가 아다니아 쉬블리를 선정했다.

ACC가 주최하고 아시아문화교류행사운영위원회(위원장 채희운)가 주관한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27일~29일 ACC에서 펼쳐졌다.

아시아문학상선정위원회는 아시아문학상 수상작가 아다니아 쉬블리에 대해 "문학을 통해 전쟁과 평화를 성찰할 수 있는 서사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특히 아다니아 쉬블리는 이스라엘 병사에게 억울하게 죽은 소녀의 죽음을 추적해 인간의 존엄과 역사의 진실을 밝혀가는 '사소한 일'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의 도시, 인간과 비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제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은 인간과 비인간(AI, 유령)이 공존하는 아시아 도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해 아시아 가치를 조명하고 토론을 했다.

페스티벌 1세션은 '도시와 문명: 인간과 비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변화상을 탐구했으며 2세션 '오래된 미래: 전통과 현대의 이야기'에서는 지난 2016년 맨부커상 수상 후보에 오른 인도네시아 에카 쿠르니안, 베트남 구원 트롱 꾸이 등이 주제를 매개로 함께 했다. 3세션 '세계의 위기: 공존과 상생의 이야기'에서는 5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 아다니아 쉬블리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ACC에서는 '서(書)로 만난 사이'라는 주제의 '책 읽는 ACC'도 28일~29일 열렸다. 문학작품을 음악 공연으로 풀어가는 '북스킹'이 북라운지에서 펼쳐졌으며 문화창조원 지하 북도에서는 전국 독립서점 및 출판사 등이 참여한 '북마켓'이 열렸다.

또한 28일에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이자 배우인 차인표 작가의 북토크가, 29일에는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의 저자 공지 작가의 북토크가 이어져 관심을 끌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강현 전당장이 수상작가인 아다니아 쉬블리(오른쪽)에게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 <ACC 제공>

'찾아오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로그램'

광주비엔날레 연계 프로그램 시민도슨트 양성교육 11월까지

'찾아오는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프로그램'.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연계 프로그램인 시민도슨트 양성교육이 본격 시작했다. '찾아오는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프로그램'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번 양성교육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찾아오는 프로그램'은 용봉동 사무동 컨퍼런스홀 및 거시기홀에서 펼쳐진다. (매주 화, 목 오후 2시 회차당 50명)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역대 작품들에 대한 소개를 듣고 전문 도슨트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는 시간이다. 신청은 광주시 소재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및 광주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을 맞아 확장된 동시대 미술을 알아가

는 자리다. 이번 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러진다. 기관이나 학교에 전문 강사가 방문해 교육하며 광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이 신청 가능하다고 했다. 참가비 무료.

박양우 대표이사는 "시민도슨트 양성 교육은 그동안 개최해온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 등을 압축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라며 "이번 교육을 매개로 동시대 미술 이해는 물론 광주비엔날레와 시민 사회가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펼쳐지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는 오는 12월 1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1회 만장일치 유럽 작곡 콩쿠르' 순천 출신 박성아 씨 1위

프랑스 오케스트라연합회 유럽 활동 여성 작곡가 지원

"경연에 출품했던 곡은 '사이(sa-ii-between)'입니다. 타인과 나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고, '눈 깜짝할 사이'처럼 특정 행위의 찰나성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지만 한국식 제목과 사유, 음악적 접근을 통해 존재들의 관계성을 말하고 싶었어요."

최근 프랑스 오케스트라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툴루즈 지역에서 '제1회 만장일치(unanimes) 유럽 작곡 콩쿠르'를 진행하고 수상자를 결정했다.

프랑스 문화부 후원을 받아 처음으로 진행된 경연으로, 유럽에서 활동 중인 여성 작곡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콩쿠르 명칭과 같이 2, 3등 없는 1위만을 결정하는 대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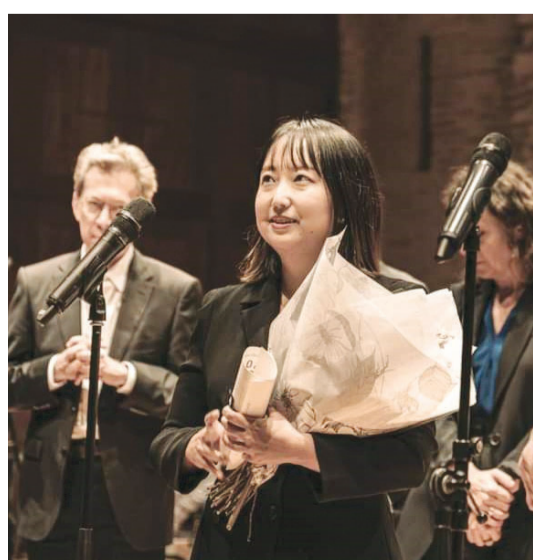
우승의 영광은 지역 출신의 작곡가 박성아(41) 씨에게 돌아갔다. 상금 5500유로와 향후 연합회 소속 오케스트라에서 위촉 작곡가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순천에서 태어나 광주에, 서울대 및 독일 함부르크-드레스덴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한 박 씨는 현재 독일에서 프리랜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 작곡가는 "유일한 동양인으로 결선에 진출, 세 명 중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승을 거머쥐게 돼 영광이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유럽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양인 작곡가의 실력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작곡 '사이'는 지난 2013년 한독수교 130주년 기념 '제1회 독일 한국음악제'에서 초연, 이듬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선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제1회 만장일치 유럽 작곡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박성아 씨. <박성아 측 제공>

5·18성폭력 피해 증언회 오늘 국회서 열려

광주여성가족재단 연대기관 참여

5·18 당시 성폭력 피해 등을 입었던 당사자들이 국회도서관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다.

피해증언자모임 열매(대표 김복희·열매)는 성폭력 피해자 증언회 '용기와 응답'을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강당(B105)에서 연다. 이번 증언회는 국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후속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숙, 최미자 씨 등 광주민중항쟁 당시 피해를 당했던 이들이 발언자로 나서며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연대 기관으로 참여해 향후 피해사실과 활동상을 담은 백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38년만에 '미투 운동'을 전개해 5·18 수사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관에게 강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렸던 김선숙(66) 씨는 "나의 몸과 기억이 역사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다.

2018년 정부 공동조사단에 가장 먼저 조사를 신청했던 최경숙 씨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다. "그때 유산된 아이가 딸이었다면, 최미자는 '대검에 의한 자상 피해'는 말할 수 있었지만"이라는 주제로 당시 피해를 밝힐 예정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국가가 자행했던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없다면 영원히 잊히고 기록으로 남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더 확장됐으면 한다"고 했다.